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 거사불교의 요람인 직장직능 불자회, 지난 해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전국경찰불자연합회 등 동일직종 연합회가 창립되는 등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직장불자회들이 직장에서 법회를 보고 있어 생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도법사 부재, 법회 장소 미확보, 재정적 어려움, 회원의 잦은 전출과 퇴직 등은 직장법회 활성화의 걸림돌이다. 그러나 최근 인근 사찰과의 연계를 통해 이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 내실을 다지는 불자회가 늘고 있다.

직장불자회 사찰과 손잡기

한전 반야회-봉은사 등 법사·법당확보 숙제 해결

산조회 조직등 내실 다져

한전 분사 반야회(회장 김영창)는 3일 강남 봉은사 대웅전에서 지도법사 지오(봉은사 교 육국장)의 집전으로 신년하례를 겸한 육 법공양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 참석한 40여명의 회원들은 이날 법 회에서 꽃 과일 등 공양물을 부처님 전에 정 성스럽게 올렸다. 3년 전 기복신앙을 탈피하고 진정한 공양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로 처음 실시된 육법공양법회는 봉은사의 법회장 소 제공과 지도법사 파견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다. 반야회는 그동안 봉은사로부터 지도 법사 스님을 위촉받아 매달 분사 세미나실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하며 신심을 키워왔다.

반야회 홍기성 총무는 "인근 사찰과 유대 를 통해 법회를 봉행하다 보니 법회 때마다 법회장소 및 법사 섭외에 대한 고민이 사라 졌다"며 "또한 불자회 운영에 있어서도 장소 대여비, 법사초빙비 등의 지출이 없어져 지 금은 회원들의 회비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해 졌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강남 인근에 소재한 한국세무사 불자회, 선재마을 의료회, 강남구청 불신회, 강남경찰서 불자회 등도 봉은사에서 매달 정 기법회를 봉행하고 지도법사를 위촉해 신행 활동을 하고 있다.

봉은사 포교국장 재안스님은 "그동안 사찰 이 자기 신도위주의 포교를 해왔다"며 "사찰 이 지역내 직장불자들과 교류를 확대한다면



법회장소· 지도법사 섭외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직장불자들이 최근 인근 사찰과의 연계를 통해 불자회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사진은 서초 반야회 정기법회 모습.

지역 불교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 고 말했다.

김천소년교도소 불신회(회장 김수현)는 지난 달 중순 조재영 회원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지도법사스님의 헌신적인 봉사로 불신회 원들간의 결속이 더욱 두터워졌다. 직지사 사 지역내 직장직능 불자회 지원의 일환으로 파 견한 도원 지도법사스님이 아침저녁으로 상 가집을 방문해 예불을 올려준 것을 계기로 불신회원들이 상호회를 조직하는 등 불자로 서 자부심을 갖게 됐다.

또한 김천 교사불자회, 김천지역 개인택시 불자회도 직지사로부터 지도법사를 위촉받 고 법회장소를 제공받아 불자회의 내실을 다 지고 있다.

김수철 불신회장은 "지도법사스님이 법회 시간에 기초교리 등 불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 을 가르치고 예경사시 적극 동참해 불자회에 생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서울시 26개 구청 불신회원들과 경찰서 불자회 대부분이 관내 사암연합회와 연계해 활동을 펼치고 있고 법조인 불자회인 서초법조회는 서울 우면산 대승사의 지원으 로 매달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이같은 모습은 사찰이 자기 절의 신도뿐만 아니라 일반 불자들을 포교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 에서 새로운 사찰 포교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고, 직장불자회 활성화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두식 기자(doobi@buddhapia.com)

대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국민행동 선포

일시 : 2001년 2월 7일 오전 10시30분 / 장소 : 기독교교 회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부패방지법 시민연대, 옹호로 국가인권기구설립을 위한 단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인권위원회 등 2백여 종교·시민·사회단체 들은 7일 기독교회관에서 3대개혁입법 쟁취 국민행동 선포식을 가졌다.

'3대 개혁입법' 범국민운동

종교시민단체 시국대회·서명운동 추진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불교인권 위원회 등 종교·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3대개혁 입법(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설 치,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행 동을 선언했다.

7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각계 대표자들은 3대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정쟁에 파묻혀 국 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현 정부와 정 치권을 강력히 비난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 정부하의 개혁은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정략적 꾀변과 공허한 입세를 속에 빚바린 말잔치로 전락 하고 있다"며 "김대중 정부는 야당 시절부터 주장해온 개혁입법을 미 루면서 개혁의 시기를 스스로 놓쳐 버리고 자신의 존재 의의를 포기해

버렸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야당 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도 "고통 받는 국민을 대변해야 할 야당이 고 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 으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공당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향후 개혁 성향 의 여야국회의원과 의 만남(10일), 여·야 총재 면담(19일-24일), 개혁 실현을 위한 1만인 시국선언(21일), 개혁실종 규탄 전국 동시다발 시국 대회(3월 1일), 범국민 서명운동(12 일-28일), 온라인 캠페인(오마이뉴 스, 진보넷, 만지일보, 대자포, 불교 정보센터) 등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 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의료봉사 등 자비행 다짐"

전국 병원불자련 신년하례



전국병원불자련 연합회(이하 병불련·회장 김주호)는 6일 국립서울정 신병원 소강당에서 신년하례법회 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한일병원 이영숙 회장, 국립서울정 신병원 양동선 부 회장, 경찰병원 김

진국병원불자련 합회(이하 병불련·회장 김주호)는 6일 국립서울정 신병원 소강당에서 신년하례법회 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한일병원 이영숙 회장, 국립서울정 신병원 양동선 부 회장, 경찰병원 김

정숙 부회장, 동국의료원 보현회 김명숙 총무, 이화주 명성여고 교법사 등 사부대중 30여명이 참석했다. 병불련은 이날 법회에서 4월 7일 두차례 의료봉사 실시, 6월 합동 성지 순례, 9월 연합대법회 봉행 등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김주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7월 창립에 아직 채 1년도 안되었지만 그동안 의료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며 "앞으로도 병원불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비를 실천하는 불자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회에 앞서 '죽음에서 장례까지의 모든 것'을 주제로 전국불교장 의연합회 유정택 회장의 특별강연도 펼쳐졌다. 김두식 기자

게시판

알림

▲ 무료 법률상담=응인종합사회복지관은 매월 2, 4, 5째주 일요일 오후 1시~3시 복지관 307호 에서 채무, 채권, 세무, 회계 등에 대한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한다. (02)577-5800

▲ 치매노인 단기보호센터 개원=해명복지원은 14일 청담치매 노인단기보호센터를 개원한다. 치매노인을 보호하고 그 부양 가족의 정신적, 경 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설립되는 노인 보호센터에서는 일상생활동작, 작업치료, 물리 치료, 재활 및 위생간호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을 제공한다. (02)806-1378

▲ 결식아동 돌기선독전=충북불교회관은 결식 아동과 노숙자를 돌기위해 범주스님의 달마 선 목적을 회관내 광명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

사회에서는 범주스님의 달마도와 도자기 등 20 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043)294-8525

▲ 회당장학생 선발=불교진각종 회당장학회는 진각종 교도로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불자를 대상으로 회당장학생을 선발한다. 접수 기간은 17일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신청서, 추천서, 성적 증명서 각각 1통씩이다. (02)913-0751

강좌

▲ 금강선원 불교교리=금강선원은 3개월간 불 교교리 강좌를 개설한다. 불교방송 문화센터 강 사 해거스님이 진행하는 이번 강좌는 3월 7일부 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대웅전에서 진 행된다. (02)445-8484

▲ 정암사 서장강좌=해인사 백련암 서울선원 정암사 모심선원은 16일부터 22일까지 서장강 좌를 개설한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해인사 선원 원웅스님이 강의 한다. (02)523-8088

모집

▲ 한글의식교육원생=동산반야회는 1년 과정 의 한글의식교육원생을 모집한다. 불교의식을 배우고자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강 의는 3월 3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동산법당에서 진행된다. (02)732-1206

▲ 지도법사=원각사는 초중고 학생들의 법회 를 이끌어 줄 지도법사스님을 모집한다. 아동· 청소년 포교에 관심있는 비구, 비구니스님은 누 구나 지원 가능하다. (033)636-1846

▲ 단기적응훈련 교육생=공정종합사회복지관 은 일하고 싶어도 마땅한 기술이 없는 사람을 대 상으로 단기적응훈련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기 간은 3월 2일부터 20일까지. (051)363-2063

▲ 교육프로그램 강사=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단편호흡, 서예, 탁 구, 한글, 중국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강사를 모집한다. (02)929-7950

2001년 범음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1969년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87년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이 되어 불교 교역자로서 의견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종파를 초월하여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내용					
학 년	강 의 내 용	모집인원	학 년	강 의 내 용	모집인원
1 학년	상주권공과	50명	특 수	바라, 나비춤, 법고등	약간명
2 학년	각배과	50명	이 론	불교의식론	
3 학년	영산과	50명			

2. 응시자격 승려, 교역자, 특별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전형방법 서류전형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 ② 주민등록등본 및 성적 증명서 1부 ③ 증명사진 3매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1년 2월 12일 ~ 3월 1일까지

5. 원서교부 및 접수처 범음대학 교무처

6. 합격자 발표 2001년 3월 3일 발표(개별통지)

7. 입학일 2001년 3월 5일 오후 2시(봉원사 설법전)

8. 특 전 졸업생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을 받을 수 있음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범음대 TEL (02)392-3234, 종무소 TEL (02)392-3007~8, FAX (02)393-9450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범음대학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월(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항비

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인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항비를 신권(배꼽)에 착용하면 방한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권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봅니다. 항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은 생식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기 엄마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은 것처럼 신권혈(배꼽)에 항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 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항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 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탈 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항요법 항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걸친 생리통으 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사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항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항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 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항비팩을 배꼽(신권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 다. 그리고 한달 여음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 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물 라볼 정도로 피부와 활짝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제 저는 항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게될 정도로 항비에 대한 고마 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 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전국 대리점 모집 중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매달되는 증상(○) 기입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울면 눈물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증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위력이 없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때 배꼽이 고통스럽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는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 16 목이 싸늘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 18 담노나 감성으로 고통을 당한다

※ 3주까지 이상 매달되는 증상은 물론 즉시 전의뢰하십시오